

## “부처님의 걸음 따라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총기 5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연등회'가 지난달 20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렸다. 종단은 300여 명의 사부대중과 함께 주불인 비로자나부처님과 교상과 사상의 핵심 주제관음상을 장엄등으로 모시고,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훤' 그리고 육합상을 환히 밝히며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발원했다. 관련 기사/화보 6,7면

##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밀교’

13일 정각사, 한국밀교학회 학술대회



한국밀교학회 2024년 춘계 학술대회가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밀교’라는 주제로 오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된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종조 원정 대성사 관련 논문이 국내 처음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종단은 물론 불교학계에서도 매우 의미있는 학술대회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논문은 정성준 박사(전 티벳대장경역경원 연구원) 수 십 년간에 걸쳐 종단과 인연을 맺어 오면서 불교총지중과 종조 원정 대성사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서 ‘원정대성사 밀교사관의 계승과 과제’라는 주제를 발표하게 됐다. 총 다섯 주제 중 제1 주제로 발표되는 이 논문은 서울

불교대학원대학교 김치은 교수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김경조 초빙 교수의 논평으로 진행된다.

한국밀교학회 학술대회는 그동안 밀교학·불교학 분야에서 활약한 대표 석학들이 발표자와 사회자, 논평자로 참석해 한국 정통 밀교학을 가일층 발전시키는 대회로 자리매김해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의미 깊은 종단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국밀교의 전개에 따른 육자진언 문물의 현황과 특징 △인도후기밀교에서 기술하는 밀교의 위상과 의의 △불정존승 다라니에 관하여 △실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불교의 밀교적 경향 등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 합동 봉행

7년 만에 전국 한자리, 7월 16일 문경에서

총기 53년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전국사원 합동으로 봉행된다. 총기 46년 충북 단양에서의 합동 법회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대법회는 하반기 49일 진호국 가불사가 회향되는 7월 15일 해탈절 다음날인 16일 전국 각 사원에서 교도들이 모이는 시간을 고려해 오후 1시부터 경북 문경실내체육관에 법석을 마련한다.

1부와 2부로 진행되는 이번 대법회는 방생법회에 이어 교도 간 신심을 증장시키고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통리원장 우인 정사는 이번 대법회와 관련해 “한 사람 한 사람의 불공이 모두가 소중하고, 그 소중한 불공으로 인하여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공덕이 미친다.”고 전제하고 “한자리에 모여 49일 정진을

함께 회향하며, 서로 신심을 점검하고, 그 공덕이 더 큰 인간방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1978년 10월 17일 개최된 제12회 중앙총회 및 제10회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에서 7월 15일 해탈절 행사를 수록대 재 불사로 바꾸고, 1983년부터 각 교

구별 방생대법회, 1987년 경남북구 합동 호국안민 방생대법회, 1987년 경인지구 합동 호국안민방생대법회 등으로 봉행되어 왔다.

이후 1992년 6월 방생불사에 관한 종령 유시로 법회 회사금은 고아원, 양로원,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들의 이웃을 돕고 자비를 나누는 ‘인간방생불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박재원 기자

### 열반 스승 추선법회 안내

상지화 지수 열반 1주기 추선법회 17일(월) 13:00 총지사 서원당

효강 대종사 열반 2주기 추선법회 29일(토) 13:00 총지사 서원당

### 종/조/법/어

인생은 무상해도 진리는 영원하다.  
진리에는 근신하고 현실에는 과감하라.

### 지 면 안내

4면 함께 읽는 종조법설집 6·7면 부처님오신날 봉축화보  
8면 왕생법문/반야를 길러라 10면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㉓

# 총기 53년 하반기 49일 불공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날짜 \_ 총기 53년 5월 28일(화) ~7월 15일(월)

장소 \_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 서울경인교구 록경 정사 연임 동해중 법상인 전수 등 임명장

서울경인교구 교구장에 록경 정사(총지사 주교)가 연임 됐다. 또 보현 전수(밀인사 교화스승)도 총무에 연임됐다. 서울경인교구는 5월 22일 회의를 열고, 같은달 23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교구장과 총무를 만장일치로 연임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춘계 강공 때 열린 제168회 중앙총의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임원 및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임원에 대한 선임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현 임원을 연임하기로 의결했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불교총지종유지재단 이사 금강륜 전수, 행원심 전수 △불교총지종유지재단 감사 지현 전수, 묘홍 전수 △학교법인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이사 법상인 전수, 강경중 이사



서울경인교구장 록경 정사



동해중이사 법상인 전수



유지재단이사 금강륜 전수



유지재단이사 행원심 전수



유지재단감사 묘홍 전수



유지재단감사 지현 전수



서울경인교구총무 보현 전수

## “우리 복덕 인도하신 스승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경인교구산정회(지회장: 박정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중령 예하를 비롯한 교구 스승님에 대한 보은 행사를 경기도 모처에서 가졌다. 참석 교도들은 스승에게 공양을 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노란색 칼라꽃 화분을 선사했다. 노란 칼라의 꽃말은 존경과 사랑을 담고 있다.

## 총기 53년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

전국 사원에서 5월 28일 하반기 49일 불공 입재에 들었다. 서원당에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총지종 교세발전,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 평화통일, 재난불생 산업발전 등 나라와 일체중생의 영식천도, 업장소멸을 서원하며 49일 간 불공을 올린다. 49일 불공은 밀교의 호국 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해 실시하는 진호국가불공이며, 부모와 나라, 중생과 삼보의 은혜를 갚는 불공의 일환으로, 사대 은혜에 보은하는 중요 실천불공이며, 오는 7월 15일 해탈절에 회향한다.

사진=총지사 서원당



## 부산 정각사 단월회 6월 관불행사

김해 은하사, 동림대 일대서 교화발전 발원



부산 정각사 각자님들 모인 단월회(회장: 강경중)가 6월 2일 자성일 법회 후 정각사가 제공한 차량으로 김해 은하사와 동림대 일대에서 관불행사를 가졌다. 전 동해중학교 교장을 역임한 강 회장과 단월회 회원들은 정각사 교화발전에 앞장서 오고 있다.

## BBS, 청년 명상 노래 콘테스트 개최

6월 16일까지 접수...대상 1000만원

BBS불교방송이 '제1회 스스로그대로 청년 명상 노래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청년인재 발굴과 포교 기반 확대를 위해 열리는 이번 콘테스트는 사단법인 스스로그대로 절명상 선원장 향산 스님의 창작 명상곡을 소재로 한 유튜브 쇼츠 영상으로 예선전을 펼친다.

예선 접수는 6월 16일 오후 6시까지며, 불교방송 홈페이지 공모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제1회 스스로그대로 청년 명상 노래 콘테스트'는 불교 포교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액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 국회에 밝힌 봉축탑 “화합과 협치·상생” 발원



국회 중앙 잔디광장에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탑을 밝혔다. 통일위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정각회장 등 국회 정각회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협치, 상생’을 발원하며 지난 4월 30일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 종단협 지도자 연수교육 ‘AI와 불교의 미래’ 강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이하 종단협)가 회원 종단 스님과 정사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5월 27~2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된 ‘불기 2568(2024)년 회원 종단 연수’에는 통일원 사무국장 남해 정사를 비롯한 스님과 정사 등 70여 명이 동참했다. 임재식에 이어 해인사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의 ‘AI와 불교의 미래’,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스님의 ‘일상 속 선명상 동행하기’, 서울 흥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의 ‘전법 포교이야기’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남해 정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종교계 역시 많은 부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종단도 4차산업시대 포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포교 원력이 증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무아·윤회 논쟁

지혜의눈

윤회, 우빠니샤드 문헌서 유래...불교도 수용  
무아임에도 ‘윤회하는 주체’ 두고 논쟁 진행

불교계에서는 윤회(輪廻)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윤회는 기원전 600년경 우빠니샤드(Upanishad)의 문헌에서 비롯되어 대중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에 불교와 자이나교도 수용하였습니다. 업설(業說)과 결합되어 윤회는 힌두교, 자이나교와 불교에 공통적으로 있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윤회의 주체로 영혼을 인정하는 힌두교와 자이나교와 불교는 무아를 주장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부터 윤회와 무아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윤회와 업, 무아설과 연기설, 그리고 열반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주요한 핵심교리와 연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윤회와 무아라는 두 개념은 이후 여러장 사상과 불성(佛性)과 공(空)과 연결되어 현재까지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윤회 내지는 순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빅뱅이후 원자는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우주를 형성해왔고 시간이 지나면 별들도 생명을 다해 다시 원자단위로 흩어진다고 합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이러한 순환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쟁점은 윤회의 주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불교는 윤회의 주체로 고정된 자아내지 영혼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만물은 스스로의 행위에 의해 개별적인 업을 형성하고 한편으로 의지할 공간으로서 기세간(器世間)을 형성하는 공업(共業)을 짓게 됩니다. 기세간(器世間)이 곧 우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스스로의 행위에서 비롯한 업에 의해 끊임없이 순환하는데 업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힌두교나 여타 종교의 결정론적 세계관과는 달리 불교에서는 해탈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과학자가 종교를 비과학(非科學)의 영역으로 분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과학이란 non-science로 반과학(反科學, anti-science)과는 다릅니다. 신에 의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입장의 종교에서도 고대에는 과학을 끌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내용이 어긋나자 종교와 과학은 서로 충돌하는 단계에 와있는 것이죠. 위의 학자는 종교를 아예 과학과는 별개의 영역으로 설정하려는 의도인데 과학이나 종교는 세계 내지 우주를 설명하려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종교는 과학과 결코 별개의 영역일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나’가 내생의 ‘나’로 그 본질이 유지된 채로 윤회전생(輪廻轉生)한다는 주장은 명백히 연기설에 배치됩니다. 이는 결정론의 또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연기설이 아닙니다. 불교의 윤회설은 무아(無我)와 짝을 이루고 있어서 향상(向上)과 향하(向下)의 변화가 가능하고 변화의 이상적인 형태인 열반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현대 과학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으로 우주의 탄생과 소멸을 말하며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현되는 것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과학은 생명의 물질적 요소인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색(色)과 정신적 요소인 수상행식(受想行識)이 임시로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불교의 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생물의 영역이 지수화풍이고 생물의 영역이 수상행식이라면 생명의 특징은 수상행식에 있습니다. 처음 오온설을 접하면서 왜 정신적 영역의 비중이 많은지 의문이 들었지만 생명 내지 인간을 설명하려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상히 밝혀놓은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 부산 정각사,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성료



#### 다도체험 등 시민들 큰 호응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부산 시민공원에서 열린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에 정각사(주교: 범일 정사)가 참여해 부산 시민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지난달 4일, 5일 개최된 체험행사에 정각사는 후호, 고리던지기 등 전통 놀이와 전통등, 자개 손거울, 2단 팽이 만들기 등을 결합한 ‘전통놀이 및 만들기’ 부스와 정각사 다도반이 주최하는 ‘다도체험’ 부스를 열어 높은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과 함께 나온 시민들이 부스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며 정각사가 준비한 프로그램과 전통차 시음, 즉석 팝콘 나눔에 큰 호응을 보였다.

##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지순례



순례기간

2024년 11월 21일(목) - 30일(토) 8박10일

순례지역

인도·네팔

룸비니·보드가야·사르나트·라즈기르·바이살리·스라바스티·산카시아·쿠슈나가르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순례비 : 2,990,000원 (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동참시 계약금 300,000원

부산은행 023-13-001361-0 포커스투어

여권사본스캔+사진스캔본 제출 비자신청용

모집인원 : 20명(선착순)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신청기간 : 2024년 7월 10일(수)까지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인솔자 남혜정사 010-9828-4083

포커스투어 010-9763-070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 한 생각 바꾸면 번뇌가 보리요, 중생이 부처다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절 밀교(密敎)란 무엇인가

### 7.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

육대(六代)를 체(體)로 하여 연(緣)하는 만상(萬相)들은 반드시 모든 작용(作用)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을 신(身), 구(口), 의(意)의 삼밀(三密)이라 한다. 이를 현교에서는 삼업(三業)이라 하여 좋은 대조(對照)가 된다.

이 삼업(三業)을 정화(淨化)하는 것이 곧 삼밀(三密)이니 즉, 부처님의 가지력(加持力)과 관행자(觀行者)의 공덕력(功德力)과 법계(法界)의 통합력(統合力)에 의하여 정화(淨化)되는 것이므로 삼밀관행(三密觀行)으로 공덕(功德)이 일어나는 것이다. 좀더 확대(擴大)하면 불(佛)이 설(說)한 진실(眞實)한 일 실행(實行)함이 신밀(身密)이요, 불(佛)이 설(設)한 진실(眞實)한 말, 말씀함이 구밀(口密)이요, 불(佛)이 설한 진실한 마음 가지는 것이 의밀(意密)이다. 이렇게 수행(修行)하는 것이 심신양면(心身兩面)으로 전인격적(全人格的)인 활동(活動)이 되는 것이니 그 진리를 지성(知性)이나 평면적(平面的)으로만 사유(思惟)에 그치지 않고 전인격(全人格)과 입체(立體)로써 긍정(肯定)함이 삼밀(三密)이 되는 동시(同時)에 행자의 자기확립(自己確立)이 되는 것이다.

진리를 사상적(思想的)으로 사유(思惟)함은 이해(理解)와 학수(學修)에만 그치고, 그 진리를 오로지 자기의 생명으로 행위(行爲)하는 전인적(全人的)인 체현(體現)에는 도달(到達)하지 못할 것이다.

밀교에서 즉신성불(卽身成佛)의 진언문(眞言門)을 개창(開創)한 것은 저 양일승(兩一乘)이 사유적(思惟的)인 선관(禪觀)에만 의(依)하여서 진리를 각오(覺悟)하려 하는 유심적(唯心的)인 그 경향(傾向)을 차원(次元)높이 끌어올려서 삼밀로써 행득(行得)하는 전인적(全人的)인 불이문(不二門)을 개현(開顯)하는 것이다.

이것을 진언비밀보리도(眞言秘密菩提道)라고 함이니 이를 실수(實修)하여 본존(本尊)의 삼밀(三密)과 행자(行者)의 삼밀(三密)이 상응(相應)하여 평등법계(平等法界)를 자증(自證)하게 된다. 즉 우주법계(宇宙法界)의 일체형색(一切形色)은 법계법신(法界法身)의 신밀(身密)이요, 우주법계(宇宙法界)의 모든 음성(音聲)은 법신구밀설법(法身口密說法)이며 형색음성이밀(形色音聲二密)에서 활동하는 그 진리(眞理)는 그 모두가 법신여래의 의밀이다. 이에 대한 행자들의 관행(觀行)하는 삼밀행(三密行)은 법신여래 그 삼밀이 행자개체(行者個體)에 연기(緣起)하고 분화(分化)하여 있는 것에 다름이 없는 까닭에 본존여래(本尊如來) 삼밀(三密)이나 관행자(觀行者)의 삼밀이나 본래일여평등(本來一如平等)으로 삼삼평등관(三三平等觀)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즉신성불(卽身成佛)이라 한다. 이하 생략

예로부터 번뇌가 곧 보리요, 중생이 곧 부처이며, 사바세계가 곧 극락이라 했다. 너무나 익히 들었던 터라 모르는 이도 거의 없고 워낙 멋들어진 명제라 반론의 여지도 별로 없다. 하지만 진실로 그렇다고 가슴 깊이 체득한 이는 많지 않을 것이다. 어렵פות이 그럴 것 같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사바와 극락이 둘이 아닌 경지는 실로 지난하다 싶다.

우리는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고자 한다. 그것이 해탈이고 성불이다.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성품이 있으며 그러므로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간단한 일은 아니니 다겁생에 걸쳐 거듭 닦아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한 수많은 불보살님께서도 생을 거듭하면서 인욕하고 구도 정진했다. 길고 험난한 수행여정이 뒤따르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머나먼 미래로 마냥 미룰 일은 아니다. 번뇌와 보리, 중생과 부처, 사바와 극락의 간극을 매우는 것이 수행일 터. 중생의 업을 짓는 신구의 삼업을 부처의 행을 닦는 신구의 삼밀로 바꾸라 한다. 삼업을 삼밀이라 하는 것은 글자 하나 바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즉신성불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부처의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불보살님과 가까워지고 하나 되게 하라는 준엄한 가르침이다.

중요한 건 자각이고 원력이며 의지이다. 일어로 부모가 되어보면 안다. 부모님 앞에서는 한없이 여리고 나약하고 의존적인 자식이었지만 아들딸 낳고 기르면서 차츰 단단해지고 굳건해진다.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의 자각이, 한 사람을 부모라는 존재로 바꿔준다. 부모답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헤아리고 헌신하는 부모로서 살게 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듯이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비슷한 사례이다. 물론 그만한 감량이 안 되거나 자리를 탐한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자리와 이름이 주는 책임과 역할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무한히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손목에 단주만 하나 차도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다. 짐짓 모른 척 하고 지나치려고 하다가 '불자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된다. '최소한 불자라는 이름에 먹칠은 하지 말자.' 마음먹게 되고 나아가 모범이 되고

자 노력한다. 불자라는 각성 덕분이다. 불공이나 기도를 드릴 때는 그 마음이 더 강렬하다. 수행자라는 자각과 더불어 불보살님이 지켜보시리라, 그리고 이 제자를 지켜주시리라 확신하니 매 순간이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워진다. 원력이 수행으로 이끄는 힘이다.

스스로를 부처가 될 존재라고 믿는 한, 그리고 이번 생애 반드시 부처가 되겠다고 발심하는 한, 진리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만나는 사람과 부딪치는 경계를 대하는 마음 가짐이 달라진다. 중생이라는 생각에 머물러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사뭇 귀하다. 포기하고 절망하기에는 이르다. 내 안의 잠재력과 나만의 장점이 보인다. 슬한 번뇌와 망상들이 솟을 때면 속상하고 한심하기도 하지만 그것 없이 깨달음은 없다. 진흙에서 피는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아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진흙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아픔과 상처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기반이 되고 새로운 돌파구가 된다. 번뇌와 망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길이 보인다.

힘들고 버거운 현실도 싫다는 생각만 벗어나면 달리 보인다. 이만한 일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용기도 생기고 이만하면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도 자란다. 이만하기 다행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고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성장과 수행에 디딤돌이 됨을 깨닫는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 쪼인 것은 풀고 맺힌 것은 녹이면 된다. 방향을 바꾸고 관점을 돌리면 번뇌는 보리가 되고 중생은 부처가 되며 현실은 극락이 된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 간직되어 있는 마음의 보물. 이름 없는 비구니 스님의 오도송이라 전하는 '심춘(尋春)'에서는 자신 안의 불성을 보라 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녔지만 봄은 보지 못하고 / 짚신이 닳도록 구름 덮인 산을 헤매고 다녔네. / 돌아와 우연히 매화 나무 밑을 지나니 / 봄은 가지 끝에 이미 한창이더라.'

본존의 삼밀은 법계에 가득하고 부처님의 가지력은 세상에 충만하니 이제 필요한 것은 관행자의 기도정진과 공덕력이다. 설악 무산스님은 안거에 입제한 스님들에게 '부처가 되려고 하면 부처가 안 됩니다. 부처로 살면 부처가 됩니다.'라고 했다. 어떻게 삼밀 수행을 닦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내가 부처로 살면 된다. 바로 지금부터 말이다. BBS「무명을 밝히고」「거룩한 만남」 윤금선 구성작가



##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 법장원과 밀교연구소 확대 개편, 밀교사상의 연구와 대중화

## 총지종의 역사

제3부 건설한 한국밀교종단으로 거듭나다(1995년~2010년)

### 01. 정통밀교종단의 가치 확립

#### 『밀교사상사 개론』 발간

경전 연구와 불서 발간을 총괄하는 법장원과 밀교연구소를 1995년 2월 18일 확대 개편했다. 효강 정사를 법장원장으로, 범경 정사, 화령 정사 등을 내부 연구원으로 임명했다. 동국대학교 서운길 교수를 지도교수로 위촉하고 동국대학교 등에서 유식학, 정토학, 비교종교학 등 석박사 전문연구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총지종의 창종과 발전에 사상적 기반을 구축한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가르침을 재조명하여 대중에게 알리고 나아가 밀교사상의 역사적, 교리적 근간을 확고히 하고 대중화하고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그때는 종단의 기대도 대단했고 투자도 엄청나게 했지요. 상근 연구원을 임명했다는 건 그만큼 연구 성과를 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종단을 위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이 저희들에게도 컸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열의가 솟구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연구를 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학회 세미나가 있다 하면 다 쫓아다녔으니까요. 종단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우리도 종단에 중요한 일을 한다는 기쁨으로 불서뿐 아니라 교화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검토했습니다. 하물며 건물양식까지 연구했을 정도로 종단의 브레인 역할을 톡톡히 했어요. 한국불교 최초의 정통밀교종단답게 밀교학 연구에 집중한 결과, 종단의 사상적 토대를 깊고 탄탄하게 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화령 정사 인터뷰 중>

밀교연구에 대한 집중투자는 2003년 6월 23일 한국 불교 최초로 밀교학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밀교사상사 개론』 발간으로 결실을 맺었다. 법장원 소속의 연구원뿐 아니라 동국대학교 정태혁 교수와 서운길 교수

등 밀교학의 권위자가 공동 집필자로 참여하여 사상적 깊이를 더했다. 밀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밀교의 정의, 밀교의 기원과 형성, 밀교의 성립과 전개, 밀교의 사상과 교학적 배경, 밀교의 수행과 실천, 한국의 밀교, 현대 한국 밀교와 원정 대성사 순으로 구성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밀교학 개론서인 『밀교사상사 개론』은 밀교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한국불교 현실에서 밀교의 역사와 사상을 총망라함으로써 최상승의 불교인 밀교의 우수성을 알리고 밀교학의 연구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 근현대 한국불교사에서 정통·정법의 밀교를 창종하고 증흥시킨 총지종의 의의와 가치를 학술적으로 정립하여 교도의 신심 고취와 포교에 기폭제가 되었다. 이 책은 스승을 대상으로 하는 강공회와 교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동해중학교 등에서 종교교육교재로 널리 활용되었다.

#### 출판과 유통체계 갖춰

2003년 5월 27일 출판사로 등록한 법장원은 자체적인 출판과 유통 체계를 갖춰 종단 내 주요 출판물과 신문, 잡지 등의 정기 간행물을 관리했다. 종보로 한정된 포교 매체를 다변화하여 2003년 종단에 처음 입문하는 교도들을 위한 안내서 『올바른 진언수행 - 총지종수행입문서』와 초입 스승들이 일선 사원에서 교화를 할 때 필요한 내용을 수록한 『포교지침서』를 발간, 체계적인 교화를 뒷받침했다. 또한 스승의 설법내용을 하나로 묶어 『삼라만상 그 모두가 법신분의 설법이라』를 펴냄으로써 일선 교화 현장의 귀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5월 17일 총지종의 기본 경전으로



법장원과 밀교연구소를 1995년 2월 18일 확대 개편하고 동국대학교 석·박사 전문연구인력을 대거 영입했다.



2012년 11월 17일 법장원과 일본불교사연구소 학술세미나 '일본의 밀교' 개최

사용해온 『불교총전』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동국대학교 역경원에 경전 원전과의 비교 검증을 의뢰하여 내용에 완벽을 기하고 현대적인 문법과 편집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종단의 기본 교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도들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일반 불자들을 위하여 시중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 이밖에도 밀교경전에 대한 역경사업을 지속하여 원정 대성사가 한 권의 『밀교장경』으로 요약 정리한 총지종의 소의 경전 『불설대승장엄보왕경』은 2002년,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은 2007년에 각각 한글로 번역하여 출간하고, 밀교경전을 대표하는 『대일경(제1권 「주심품」)』을

2010년 번역 출판했다.

#### 종조 가르침 CD로 홍보

법장원은 불서 발간에 그치지 않고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을 CD에도 담았다. 대성사의 생전 가르침을 영구보존하기 위해 이미 일반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는 육성 법문을 1998년 총 7장의 CD에 수록하여 대성사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종조 탄신 백주년을 앞두고 2006년 4월 대성사의 육성 법문을 명상 수행과 접목한 종조 법설 명상용 카세트테이프와 CD '내 모든 것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를 제작 보급했다.

그동안 책으로만 접했던 대성사의 법설을

명상용 법문으로 편안하면서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첨단 기기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작은 불사법요의식으로 확대되어 2008년 1월 총지종 영식천도불사법요의식을 카세트 테이프와 CD로 제작하여 전국 사원에 배포했다. 이 음반은 스승과 교도 가정의 장례식장 법요의식에 널리 활용되었다.

법장원과 밀교연구소의 활발한 연구와 출판으로 종단 홍보와 대중 교화, 수행법 전수의 근간을 충실하게 마련함으로써 종단은 정통·정법 밀교종단으로서 경전적, 사상적 근거를 확실히 다져나갈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밀교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불교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와 저술 발간으로 발전했다.

##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웃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겐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종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 감로수 흠뻑 맞는 서울 도심 속 꺼지지 않는 불꽃 정진



“지혜와 복덕을 구축하신 부처님! 지난 천년의 부처님 영화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의 새로운 천년이 온전하게 부처님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 환한 연등처럼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성공양 ‘꽃향기 가득한 님’이 동국대 대운동장을 울리며 분위기가 무르익자 통리원장 우인정사가 5월 11일 서울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거행된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연등행렬 참가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아 이같이 기원했다. 종단은 통리원장 우인 정사를 비롯한 서울경인교구 사부대중, 종단 산하기관 종사자 등 300여 명이 밤날 폭우에도 불구하고 범회 처음부터 조계사 행렬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부산경남교구(교구장:범일 정사)도 교구 사부대중과 동해중학교 교직원 학생 등이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시민광장에서 열린 연등회 개막식을 비롯한 연등행렬에 나섰다.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이라는 대주제로 열린 어울림마당 연등법회는 전국 각지에서 연희단과 율동단이 운집하여 긴장감과 설렘 속에서 오후 4시 반 연등회 오프닝 영상이 뜨면서 어울림마당이 본격 시작됐다. 사부대중의 환대와 박수로 내빈들이 본부석으로 입장하자 연희놀이 율동단의 신명나는 율동이 펼쳐졌으며, 동국대 운동장을 가득 매운 동참자들은 환호와 박수 일제히 율동을 따라하며,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했다.

부처님 자비로 세계평화를 기원하면서 연등법회가 회향하고 마침내 연등행렬이 시작, 동국대 범회 봉행 후 동국대 이사장 둔관 스님이 “지혜와 자비를 밝히려 세상으로 나아가자.”며 힘차게 행진을 선언한 가운데 종단은 본존과 육합상 장엄등을 선두로 6개의 대형 장엄등과 함께 교도들은 감로수병을 형상화한 행렬등을 들고 행진에 나섰다.

박재원 기자

- ① 연등법회에서 종단 대표로 관육의식을 하고 있는 통리원장 우인 정사
- ② 우중 속에서도 연등법회를 함께 즐기고 있는 서울경인교구 스승과 교도들
- ③ 서울 도심속 밝히는 종단 장엄등의 행렬 모습
- ④⑥ 부산 연등행렬에 함께하는 장엄등과 부산경남교구 사부대중
- ⑦ 감로수병을 형상화한 행렬등과 서울경인교구 교도들





불교계 가장 큰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을 발원하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15일 오전10시 서울 총지사 등 전국의 사원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종령 지성 예하는 총지사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여 법어를 통해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기에 우리는 애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듯이,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분별심을 먼저 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어온 삼독과 탐욕, 질투와 어리석음으로 인한 공업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하자."고 설교했다.

또 이날 법회에서 총지사 주교 록경 정사는 통리원장 봉축사를 대독하며, "일체중생 모두가 불성을 가진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는 지혜의 등불,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한 원력의 등불을 켜자."고 발원했다.

전국 사원에서도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헌화 및 훈향정공 후 대중불사로 법요식을 봉행하였으며, 소속 합창단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하는 음성공양을 올렸다. 동참자들은 부처님게서 오신 참 뜻과 부처님게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더욱 분발하여 정진수행 할 것을 발원했다.



- ① 종령 지성 예하가 총지사 법요식에서 봉축법어를 내리고 있다
- ② 총지사 ③ 운천사, 봉축법요식에 앞서 육법공양을 올리고 있다
- ④ 지인사 ⑤ 정각사 ⑥ 총지사, 부처님을 찬탄하는 음성공양
- ⑦ 지인사는 법요식 후 동참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가졌다
- ⑧ 정각사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교도들이 합창례를 올리고 있다
- ⑨ 총지사 권예진 어린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 ⑩ 운천사 ⑪⑫ 총지사, 동심은 불심, 법요식에 참석한 미래의 주역들







### 왕생법문

“교만의 티끌 속에 지혜는 묻혀만 가고 아상·인상·사상 위에서 무명은 자라만 가네, 제 잘난 체 안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한탄만 가득하리”

“교만의 티끌 속에 감추어진 반야!”

반야가 무엇인가? 반야는 모든 부처님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반야를 성취하여 성불하신 것입니다. 이 반야를 우리는 ‘지혜 지(智)’로 풀이합니다.

일월(日月)과 같이 밝은 ‘지(智)’는 알 ‘지(知)’자와 전혀 다릅니다. ‘지(知)’는 ‘화살시(矢)’에 ‘입 구(口)’를 더한 글자로, 화살처럼 귀로 들어왔다가는 입으로 나가버려서 내 속에 오래 머물지도 않고 진정한 나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곧 ‘지(知)’는 제 나름대로 알아서 써먹는 분별지(分別知)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무분별지(無分別智)입니다.

분별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하며, 평등하고 원만한 지혜입니다. 이러한 무분별지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이를 부처님의 사지(四智)라고 합니다. 부처님만이 온전하게 발현시킬 수 있는 네 가지 완벽한 반야 지혜, 그것은 대원경지(大圓鏡智), 평등성지(平等性智), 묘관찰지(妙觀察智), 성소작지(成所作智)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원경지’는 이름 그대로 크고 둥근 거울과 같은 지혜입니다. 작은 거울은 영상이 조금밖에 비치지 않지만 크나큰 거울에는 모든 영상이 비춰집니다. 모난 거울은 한쪽만을 비출 수 있지만 둥근 거울은 사방을 다 비출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거울은 사물만 비추고 염라대왕 앞의 업경(業鏡)은 지난 세상에 지은 업만이 비추지만, 대원경에는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있는 그대로 다 나타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대원경지’를 성취했기 때문에 일체중생의 마음속 일을 동시에 다 보십니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인

류, 네발 달린 짐승이나 꿈틀거리는 미물들의 마음까지도 낱알이 비춰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등성지’는 평등한 마음으로 비춰보는 지혜, 조그마한 차별심 없이 비춰보는 지혜입니다. 해와 달은 차별없이 빛을 비춥니다. 누구는 예쁘니까 더 많은 빛을 주고, 누구는 미우니까 조그마한 빛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한결같이 빛을 주고 또 줄 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한테 별받았다, 부처님이 특별히 복을 준다’는 등의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비광명은 조금도 모자람 없이 나에게 비춥니다.

허물은 내 쪽에 있는 것인지 부처님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되고 안 되고의 열쇠는 내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인지 부처님 쪽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미우니까 벌을 주고 예쁘니까 복을 주는 그런 분이려면, 그것은 귀신이지 부처님이 아닙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예뻐한다면 그분이 어찌 대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평등하게 일체중생을 살피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며, 그와 같은 자비광명은 바로 평등성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묘관찰지’는 과거, 현재, 미래의 아주 세밀한 것까지 남김없이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2천 5백년 전에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방울의 물을 관찰하니 8만4천 마리의 벌레가 있구나, 우리의 몸에는 팔만 개의 털구멍이 있고, 하나하나의 털 구멍마다 구역 마리의 벌레가 살고 있다.”

이러한 말씀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다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묘관찰지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대집경』 등에는 부처님 열반에 든 뒤 5백 년이 지났을 때, 천 년이 지났을 때, 2천 5

## 반야를 길러라



백 년이 지났을 때, 3천 5백 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든가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처승이 생기고 교단이 어떻게 된다는 등의 불교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일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쪽 사람이 가만히 서서 손가락만 움직이면 저쪽 사람이 죽는다.”

“저드람이에 날개를 붙여 하늘로 날아간다.”

“이제는 땅만 파먹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허공을 파먹고 사는 세상이 온다.”

“나중에 한 방울의 액체만 먹고도 살 수 있고, 팔만 퍼면 그냥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다.”

이 예언처럼 권총이나 레이저 광선 등이 발명되어 서로 죽이고 행글라이더를 타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원자, 전자를 이용하

여 공기 속에서 영양분을 추출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세상도 왔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묘관찰지로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남김없이 꿰뚫어 보고 계시며, 시방 세계의 모든 국토를 남김없이 관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성소작지’는 짓는 바를 다 완성하는 지혜,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을 다 알게 하는 지혜입니다. 곧,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상의 네 가지 지혜가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중생에게도 이 지혜는 있습니다. 다만 감추어져 있어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교만의 티끌 속에 묻혀 빛을 발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생들은 교만의 먼지를 털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아상과 인상에 얽매어 무명만 키워 갑니다. ‘나’와 ‘너’로 편을 가르고 벽을 쌓아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갑니다.

정녕, 아상과 인상을 내세워 무명의 업장만 키워간다면 다가오는 과보는 너무나 명백해집니다. 굳게 닫혀 있는 지옥의 문도 그 업의 힘은 능히 열 수 있습니다. 불지옥도 칼지옥도 뱀지옥도 능히 만들어냅니다. 어찌 두려워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늙음은 빨리 옵니다. 지금 마음을 되잡아 도를 닦지 않는다면 “제 잘난 체 안 배우고 세월만 보낸다면 병들어 신음할 때 한탄만 가득하리”라는 말처럼 결과는 자명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디. 부디 아상을 버리고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하심을 하면 어느 곳에서나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심을 하면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선, 기도, 경전공부! 그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티끌이 차츰 사라져 어둠은 걷히기 시작할 것이고 반야의 지혜는 발현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니, 뒷날 후회없이 없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또 정진하십시오.

### 총지사 교도 광고

#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 고려시대 선밀쌍수(禪密雙修)

조선불교 시대 유행한 밀교의 면목을 파악하다 보면 그 원류인 고려시대 전적을 함께 살펴볼 수 없다. 고려 조 선조를 통틀어 밀교를 전문적으로 다룬 문헌과 유물은 조선 초 신인종-총지종의 강제통폐합과 더불어 대부분 멸실되어 사라졌기 때문에 양대에 걸친 밀교의 유행을 모두 알 길이 없지만 학자들의 노력으로 적지 않은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존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밀교의 흔적을 찾는 것은 바닷가의 모래를 찾는 것과 같이 문헌들을 뒤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의 유물선을 망라한 고전과 사료들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자료가 제공되고 있어 과거 많은 시간이 걸리던 검색 작업이 단축되었지만 밀교 관련 자료들은 전공자의 부재 탓으로 그 온전한 면목이 드러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고려시대 발간된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은 진정 천책(眞靜天頌, 1206~?)의 저술로 그는 고려 고종 때 승려이다. 스님의 탄생 연도는 1206년과 1209년의 여러 설이 있고, 1293년에 『선문보장록』에 서(序)를 달았기 때문에 무려 90에 가까운 세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글을 쓰고 논구를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스님은 고려 태조 때의 공신 신원달(申原達)의 11대손으로 약관의 나이에 예부시에 급제한 후 20대 초반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를 참문 하고 최초 천태종에 출가하였다. 이후에 30대 후반에 백련사의 주지를 지낸 기록이 남아있지만 『선문보장록』은 스님에 의해 한국선의 조사선종 진작을 도모한 것이다. 『선문보장록』에는 몽암 거사 이훈(李混)의 발문이 부여되어 있으며 책의 내용은 선가의 공안(公案) 86칙에 대해 그 전거를 밝힌 것이다. 책의 내용은 선교합일(禪教合一)을 개진하면서 선문의 우위성을 밝히는 선주교종(禪主教從)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해제에는 『선문보장록』이 조선시대 1531년



선문보장록 1611년 쌍계사 목판본

(중종 26) 경남 하동 지리산 철굴암(鐵窟庵)에서 개간되어 목판본이 출판되었고, 다시 1611년 지리산 능인암(能仁庵)에서 재개간되어 쌍계사(雙溪寺)로 옮겨졌다. 1908년 금정산 범어사에서 개간된 『선문촬요(禪門撮要)』에 수록되었으며 지금도 선가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책의 내용 가운데 눈여겨 볼 대목은 권상에 드러나는 것으로 고려조 현교와 밀교, 선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요약한 것이다. 내용에 따르면, “불교는 무엇이든지 세 가지 분류를 벗어나지 않는다. 첫째 현교는 소승·대승의 경론론 삼장이고, 둘째 밀교는 진언유가·관정·오부호마·삼밀가지·만다라의례를 포함한다. 셋째 심교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선법이다. 다음 최초 법륜은 현교로 『마등경』 권상 제2장을 첫 출발로 삼고, 다음 두 번째 법륜은 곧 밀교로서 금강지(金剛智) 삼장을 시조로 삼는다. 다음 세 번째 심교의 법륜은 보리달마(菩提達磨)를 시조로 삼아 법을 전한 것이다(敎者不倫 有三疇類 一顯敎者 諸乘經律論也 二密敎者 瑜伽灌頂五部護摩三密曼拏羅法 三心敎者 直指人心 見性成佛 禪法也 次一法輪 顯顯敎也 以摩騰卷上第二張 爲始祖焉 次二敎法輪者 卽密敎也 以金剛智 爲始祖焉 次三心輪者 以菩提達磨 爲始祖焉 是故傳法)라고 하였다. 현교와 관련해 『마등가경』을 거든 것은 붓다로부터 아난존자가 최초 법을 물은 것에 연유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밀교와 관련한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밀교의 조사에 금강지삼장이 거론된 것이다.

선무의삼장 대신 금강지삼장을 꼽은 것은 고려시대 밀교를 두고 선(禪)과 친숙한 유가밀교를 제일로 삼은 탓인지 그 의도를 생각해보는 일이다. 여기서 삼밀만다라법(三密曼拏羅法)에 대해서는 신밀만다라·구밀만다라·심밀만다라로 구분할 여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려시대 오부호마와 만다라의례가 엄연히 실존한 대목이다. 오부호마는 금강계법에 입각한 것으로 오부(悉地)·경애(敬愛)·구소(鉤鈎)의 다섯 호마법을 가리킨다. 만다라법(曼拏羅法)은 태장계·금강계법을 아우른 것으로 고려시대 18도법, 호마·태장계·금강계·호마도량이 온전히 갖추어 설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일본불교와 많은 교류가 있었는데 일본의 밀교승도 한국에 건너와 양국이 밀교의례를 두고 의식을 함께 연구한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고려 밀교와 일본밀교의 친숙한 관계는 조선조 왕실에 의해 밀교사찰과 전적이 훼손되던 때 일본 밀교승이 세종에게 밀교대장경(密敎大藏經)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대목이다. 당시 세종은 불교를 경한시 하던 때여서 허락하였지만, 한번 일본으로 건너간 밀교대장경은 사고에 의한 화재를 이유로 다시는 조선에 돌아올 수 없었다. 개인적으로 밀교를 연구하면서 오래도록 찾았던 양부 도량(道場)의 기록을 보는 황제를 보게 되었다.

전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영역원 정성준 연구원



# 연작(燕雀)이 어찌 홍곡(鴻鵠)의 뜻을 알리오

연작안지(燕雀安知鴻鵠志哉) 홍곡지지재(鴻鵠之志哉)라는 말이 있다.

‘땅위의 벌레나 잡아먹고 사는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창공을 나는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는가?’라는 말로 곧 평범한 사람이 영웅의 큰 뜻을 알 리가 없다는 의미이다. 이 이야기는 사마천(司馬遷)의 『사기열전(史記列傳)』의 진섭세가(陳涉世家)에 전해 오는 이야기이다.

진(秦)나라 양성(陽城)에 진승(陳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젊었을 때 어떤 집에서 고용인으로 일하던 중 주인에게 “장래에 부귀한 몸이 되더라도 서로 잊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말하자, “우리 같이 밭이나 가는 농사꾼 주제에 어떻게 부귀하게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핀잔을 주었다고 한다.

이에 진승(陳勝)은 “아,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큰 뜻을 알리오.”라고 탄식했다 전해지며, 이 말은 소인(小人)은 군자(大人)의 큰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말로 자주 회자 되는 말이다.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때는 중국의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잠시나마 전란이 멎었을 무렵, 지금의 중국 하남 땅 양성(陽城)이라는 곳에 두 남자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한 남자는 그 밭의 주인이요, 다른 한 남자는 그 집의 고용인인 진승(陳勝)이었다.

이 두 사람이 나란히 밭갈이를 하고 있을 때, 머슴이 문득 일손을 멈추고 그 주인에게 말했다.

“혹시 우리가 장래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우리 서로 옛정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진승(陳勝)을 꾸짖으며 말하기를, “이 미친 녀석아! 남의 집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주제에 부귀영화를 누리다니 그게 무슨 가당치도 않는 소리냐?”하고 꾸짖었다.

그러나 진승(陳勝)은 이에 개의치 않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땅위의 벌레나 잡

아먹고 사는 제비며 참새가 어찌 창공을 나는 기러기와 고니의 큰 뜻을 알겠는가?(燕雀安知鴻鵠之志哉)”라고 중얼거렸다.

진시황이 죽자, 그동안 억눌려 살던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또 다시 난세(亂世)가 찾아오고 진승(陳勝)도 군대에 징집되어 국경으로 떠나게 되었다.

진승(陳勝) 일행은 여름철 심한 장마를 만나 더 이상 진군할 수가 없게 되었다.

군령이란 엄한 것이어서 어떤 이유든 간에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진군 명령을 어긴 이상, 어차피 죽음을 당할 것이 뻔한 상황에 이르러 되자, 진승(陳勝)은 그의 친구인 오광(吳廣)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이때 진승(陳勝)은 무리를 모아놓고 이르기를, “왕후장상(王侯將相)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라고 외쳤는데, 우리나라 고려의 노예 만작(萬積)도 바로 이 구절을 구호로 삼았다고 한다.

진승(陳勝)의 거병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세력이 점차 강성하게 되자 스스로 왕위에 올라 국호를 장조(張楚)라 함으로써 진나라는 끝내 멸망하게 되었고 진승은 왕후장상(王侯將相)에는 씨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으며 과거 머슴의 신세로 밭갈이하던 시절에 가졌던 야망을 끝내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때의 가정적 불행이나 가난, 또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더 공부하지 못하고 공부할 기회를 놓친 배움의 열망에 굶주린 사람들이 혹여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기 위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줄 것을 정중하게 제안해 본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 후원에 감사합니다

4월 21일 ~ 5월 20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움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산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우인	4/22	10,000	만보사	홍도열	5/7	10,000	실지사	황성녀	4/25	10,000	총지사	록경	4/26	20,000
	보명심	4/24	10,000		이중구	5/13	7,000		유승우	5/1	10,000		유은혁	5/8	10,000
	보명심	5/13	10,000		김정희	5/20	10,000		이도현	5/1	10,000		최영아	5/10	10,000
	공덕성	4/22	20,000	밀인사	박길선	5/10	10,000		이서현	5/1	10,000		백귀임	5/10	10,000
	수중원	4/22	10,000		덕광	5/10	20,000		이루나	5/1	10,000		김정환	5/11	10,000
	밀공정	4/22	10,000	밀행사	행원심	5/16	10,000	아동회관 어린이집	진금선	4/25	80,000		외부연등	5/16	306,000
	선도원	4/22	10,000		이은별	5/16	10,000						신현태	5/19	10,000
	법지원	4/22	10,000	법천사	반아심	4/30	10,000	양지 제1복지관	서영주	4/29	10,000	통리원	남혜	4/22	10,000
	일성혜	4/22	10,000		인선	4/22	10,000						김평석	5/20	10,000
	사홍화	4/22	10,000	법황사	정계월	4/22	10,000	운천사	무명씨	5/14	50,000	해정사	안재석	5/19	10,000
	안주화	4/22	10,000		박미경	4/25	10,000	일원 어린이집	하재희	4/25	80,000		신선미	5/19	10,000
	진일심	4/22	10,000	벽룡사	승원	4/22	10,000		연명구	4/25	20,000		무명씨	4/30	10,000
	시각화	4/22	10,000		묘원화	4/22	10,000	자석사	도우	5/6	10,000		강동화	4/30	10,000
	최상관	4/22	10,000						지현	5/6	10,000		박대성	5/1	10,000
	연등원	4/22	10,000	벗고을 어린이집	이민선	5/1	80,000		김점남	4/28	20,000		박대영	5/1	10,000
	자선화	4/22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4/25	10,000		노점호	5/16	10,000		박옥자	5/8	10,000
	승효제	4/22	10,000	삼밀사	박필남	5/15	10,000		안한수	5/5	10,000		송영근	5/10	10,000
	주신제	4/22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묘홍	5/13	10,000		탁상달	5/13	10,000		송호영	5/10	10,000
	총지화	4/22	10,000		나석원	4/25	50,000		이진승	4/30	10,000		송하나	5/10	10,000
단음사	진여	4/25	10,000		박현정	4/25	20,000		안용준	5/18	10,000		곽방은	5/10	80,000
	법상인	4/24	20,000	성화사	신정희일동	5/8	100,000	제석사	김옥희	5/18	10,000				
덕화사	법상인	5/13	20,000		법상	4/24	20,000		안선민	5/19	10,000				
	송인근	4/22	10,000	수인사	법상	5/13	20,000		손한샘	5/19	10,000				
	법선	4/22	10,000		해광	5/12	10,000	초록 어린이집	유지영	5/2	80,000				
동해사	김진화	5/1	10,000	시법사	이순영	5/12	20,000								

\*포함 대령리 후원금

관성사	우인	5/20	100,000
-----	----	------	---------



생명살림  
경전이야기 ㉓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

# 유마경에 나타난 생태사상

정정한 불국토를 얻기를 바라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그 마음이 맑고 청정해짐에 따라  
불국토가 맑고 청정해지느니라.

『유마경』 제1<불국품>에 나오는 계승으로 불교환경운동가들이 늘 가슴에 새기는 문구이다. 환경운동은 산업혁명이후 농업에서 공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면서 환경오염이라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의 출발은 1981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였으며, 1991년 낙동강 폐놀 방류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환경운동이 시작되었음을 보면 당시 환경운동의 기반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환경운동의 시작은 좀 달랐다. 1988년 정토회에서 에코붓다의 전신인 불교환경교육원을 설립하고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도한 개발과 소비에 있으며 불교 전통 안에 있는 청빈한 삶에서 환경문제의 해법을 찾고자 하였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정정한 불국토를 얻기를 바라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는 가르침처럼,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했던 것이다. 1999년 창립된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모든 실상이 연결된 유기적 생명공동체임을 깨닫고 우주의 생명 질서인 공존·협동·균형의 길을 간다’는 기치로 생명평화운동을 비롯해 귀농학교, 지역공동체, 대안 교육, 생명 환경, 생활협동조합 등 대안적 살림 운동을 통해 부처님의 연기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환경운동의 흐름을 만들었다.

1997년 지리산담이 추진되면서 생태계보존이라는 당면한 문제에 저항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되었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스님과 불자들이

한마음으로 저항했고 지금까지 지리산을 지키는 일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2001년 불교환경연대가 창립되었다. 당시 상임대표 수경스님은 불교의 수행법인 절을 환경운동의 장으로 가져왔다. 아직까지도 매립만 하고 별 쓸모가 없는 불모지를 만들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생태적 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삶, 공동체를 짓밟는 을 막기 위해 새만금에서 광화문까지 65일 동안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하며 온 몸을 던져 저항했다. 수경스님은 삼보일배 오체투지를 하며 하심하고 참회하는 불교 수행을 그대로 환경운동의 장에서 실천하신 것이다. 불교환경연대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모토를 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며 말 못하는 생태계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앞장 서 왔으며, 에코붓다와 함께 스님들의 발우공양을 본받아 “빈그릇운동”을 대중화하는데 성공했다.

지금도 불교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코붓다는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유마경』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소육지족하고 청빈하게 살아가는 불교수행공동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마경』 제2<방편품>에서 유마거사는 “이 몸의 주인 없음을 저 땅과 같다”고 하는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땅이라는 것이 원래 주인이 없다는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땅을 갈라 소유하고 사고 파는 것이 상식인 사회에서 땅에 주인이 없다는 전제는 매우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유마거사는 몸에 대한 바른견해로 24가지를 설하는데 그 중에 17번째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초목, 기와, 돌맹이 같은 이 몸은 얇이 없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우월주의에 빠져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이 초목이나 기와나 돌맹이와 같다고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과학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인간의 몸도 분자나 원자의 관점에서 보면 초목이나 기와나 돌맹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인들의 종교 전통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여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본다. 또한 다른 피조물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주어졌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인간우월주의가 들어서게 되고 자연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우리 동양도 어느덧 서구 문물이 들어오고 산업화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려 우리의 세계관도 서구인들과 다를 바 없게 되었다. 이런 결과로 이제 지구는 하늘과 땅과 강과 바다가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파괴되고 기후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대멸종이라는 파국을 맞이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다행히 아직은 회복할 시간이 있다고 한다. 희망을 가지고 “심청정, 국토청정”의 염원을 세우고 정토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보살이 깨끗한 불국토를 취하는 것은 모두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자 함 때문이니,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빈 땅에 궁전을 지으려 하면 뜻대로 하무런 장애 없이 지을 수 있지만, 허공에 지으려고 하면 끝내 성공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유마경』 제1<불국품>



# 소유하는 행복 나누는 기쁨

어느 날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부처님께 후계자 없이 죽은 거상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상인은 순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싸라기밥을 먹고, 낡은 수레를 탔으며, 남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었다고 한다. 파세나디왕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 재산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셨다.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불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불교는 재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물질적인 부유가 불교의 교리에 어긋난다고 믿는 일부 사람들의 견해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재산의 축적을 위한 노력을 제한하기보다 부유해질 수 있게 노력하도록 장려하고 격려했다. 또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분야에서 정진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으며, 성공을 이루려는 마음은 자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시며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지 말고 모을 수 있는 많은 재산을 모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유해지기를 바라셨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율을 지켜야하며 소유한 재산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다. 즉,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자유와 모을 수 있는 재산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지만, 재산을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 그리고 목적에는 제한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법구경』에는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꿀을 따듯이 하여야 한다.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게 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 때는 자연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렇듯 재산을 모으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대방을 거짓으로 속이거나, 상대방을 착취하지 않는 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꿀을 모으되 꽃을 다치지 않게” 재산을 모아야 한다.

또한 바른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면 바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과 기술,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은 사람은 그 재산을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쓰며 행복을 느끼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와 친척을 위하며 종들을 돌본다. 또한 그는 벗들과 권속들을 위해 재산을 쓰고 가난한 이들에게 보시를 하고, 죽은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왕에게 세금을 내오. 마지막으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깨달음과 자기수양을 위해 출가한 수행승들에게 공양을 한다.”라며 올바르게 재산을 모아서 사용하라고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재산을 모아 부자가 되었을 때 ‘소유하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하셨으며 바르게 모은 재산을 바르게 나누어 보시와 자비를 베풀 때 ‘나누는 기쁨’을 느낀다고 하셨다.

오늘날 세상은 자유방임 자본주의에서 수정 자본주의를 지나 소비 자본주의의 시대를 향하고 있다. 소비 자본주의의 특징은 자신에게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제품이 마치 꼭 필요한 제품인양 소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인터넷, 핸드폰, TV를 통해 소비를 부추기는 수많은 광고들을 접하고 있으며 고가의 명품을 필수품인양 소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시대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바른 경제관념을 지니고, 소유하는 행복과 나누는 기쁨의 바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 11년 가로세로 총지문답 정답

광	명	진	언	확	망	부	석
대	눈	현	총	일	석		
무	깨	금			인	사	동
변	동	비	지	족	불	욕	아
	창	막	급	세			리
	생	공	기	자	출	입	증
외	비	밀	비			명	호
강	아	지	양	심	선	연	국
내			수	구			불
유	리	항	아	리	자	종	교

**MUSICAL**  
**싯다르타**  
The Life of Siddhartha

인류 최초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붓다!

싯다르타 Siddhartha



이태이

야소다라 Yasodhara



박규연

마라 Mara papiyas



최수형



고정우



김유진



이지연

**2024. 6. 6 THU ~ 6. 28 SUN 서울아트센터**

주최 (주)엠에스엠시, kqma 한국-네델란드 음악교류협회 주관·제작 (주)엠에스엠시 티켓 VIP 12만원 R석 10만원 S석 8만원 A석 6만원 예매처 Interpark 티켓 공연문의 1661-4191

후원 동국대학교 BBS 불교방송 BTN NH농협카드 MIND DESIGN 종로프라자극장 KCRP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한국불교테고종 불교총지중 영축총림 통도사



# 석관실버복지센터, '아버이 은혜, 감사해효(孝)' 개최

## 지역 어르신 200명 초청...다채로운 문화행사 열어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 나석원)는 지난달 8일 아버지날을 맞아 이용 어르신 200여 명을 초청해 '아버이 은혜, 감사해효(孝)'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입장하는 참석 어르신 한분 한분께 어린이집 아이들이 만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아버이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은 센터를 위해 헌신하고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기여한 어르신 다섯 분에게 카네이션과 꽃다발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1부는 센터 난타 강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광중학교 학부동 동아리 '북마마'의 난타 공연으로 그 막을 열었다. 이어 2부에서는 어르신 공경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하은어린이집 원아들의 율동 및 합창 공연을 시작으로 하모니카 동아리 '해바라기'의 연주, 가수 서희의 트로트 공연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나석원 센터장은 "아버이날을 맞

이하여 아버이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어르신으로 인해 희망을 가꾸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존경과 효를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세대통합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동참 문의= 02-957-9923



### "병아리떼 쫓쫓쫓, 봄나들이 다녀왔어요!"

#### 강남 초록어린이집,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우인 정사) 산하기관인 강남 초록어린이집(원장: 유지영)이 지난달 14일 원아 가족이 함께하는 봄나들이로 용인 동천자연식물원을 다녀왔다. 원장을 비롯한 선생님들과 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천자연식물원 내 미니동물원, 열대식물원, 숲놀이터 등을 체험했다. 어린이들은 다람쥐, 앵무새, 돼지, 염소 등을 관람하며, 먹이를 주고, 미끄럼, 모래 놀이 등을 즐기며 꽃과 동물, 숲과 흙을 밟으며 자연을 만끽했다.

유지영 원장은 "가족이 함께 참석해 아이들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사회복지재단의 지원으로 특별한 도시락을 마련해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함께 했다"며, 종단에 대한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고맙습니다**

**운천사**

종령 추대법회/춘계강공회 회사 운천사 신정회, 무명보시

**총지사**

나눔실천 1천원 등달기 306,000원 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

**축하**    **총지사** 5월 13일 김현숙 교도 득의손녀

**보현 전수의 총지스케치**

##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㉔		㉒		②	㉑	
			③				
					④		㉓
⑤	㉕		⑥	㉖			
		⑦					
	⑧	㉗	⑨	㉘		㉙	
㉚		⑩				⑪	**
⑫			⑬	#			
⑭						⑮	

- 가로 열쇠**
- ① 부처님의 광명으로 모든 업보가 소멸되는 진언
  - ② 아내가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되었다는 전설의 돌
  - ③ 나라 위해 목숨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법정기념일
  - ④ 골동품, 화랑, 표구, 필방, 전통공예품, 전통차집 등이 집중되어 있는 종로 거리
  - ⑤ 원료비, 동력비 등 생산량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따라 변하는 비용
  - ⑥ 제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0족0목
  - ⑦ 더 이상 이를 수 없이 심함. "너를 만났게 정말 후회 00이다."
  - ⑧ 익히지 않은 상태의 콩
  - ⑨ 어떤 장소를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기자들에게만 부여된 표
  - ⑩ "너만 알고 있어야해, 약속!"
  - ⑪ 물건의 이름이나 사물의 호칭을 이르는 말
  - ⑫ 우리집 000는 복슬 000. 학교 갔다 돌아오면 멍멍멍~
  - ⑬ 비리나 부정을 양심에 따라 대충 앞에서 사실대로 숨김없이 말하는 일
  - ⑭ 리 리 리 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따사리 대싸리 소쿠리 00000~
  - ⑮ 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 세로 열쇠**
- ㉑ 한없이 넓고 커서 끝이 없음. 0000하신 비로자나부처님!
  - ㉒ 비가 섞여 내리는 눈
  - ㉓ 늘이고 넓혀 충실하게 하다
  - ㉔ 경북 영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인 무량수전이 있는 절
  - ㉕ 예금을 현금으로 자동 인출 하는 기계
  - ㉖ 육바라밀(波羅蜜)의 하나 중 참고 견디며 화를 내거나 한탄하지 않는 것
  - ㉗ 같은 목적으로 한때를 이룬 무리
  - ㉘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
  - ㉙ 좀처럼 세상에 나지 않는다는 뜻, 매우 뛰어난 사람이나 작품 등을 이르는 말
  - ㉚ 콩으로 만든 비지
  - ㉛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㉜ 어떤 사항, 판단, 이유 등에 대하여 그것의 진위를 증거를 들어서 밝힘
  - ㉝ 겉으로는 강하고 깨끗하게 보이나 속은 부드럽고 순함
  - ㉞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마을 이름. 두물머리
- # 일송정 푸른 숲은 늙어늙어 갔어도...  
\*\* 나라를 위한 진호국가불공과 수호국계주진언 옴홍야호사, 00불교

# 불교총지종 법회 안내 및 사원 일람

불교총지종 연중 불공	
새해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공에 부국강병-국태만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예』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만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서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b>서울경인교구</b>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88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b>충청전라교구</b>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범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b>대구경북교구</b>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견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성내동)	(054)333-0526
선림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b>부산경남교구</b>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대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1 (초량동)	(051)468-7164
삼일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림길 109 (영선동17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효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태화동)	(052)244-7760
윤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원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불교총지종 불공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새해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종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상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해탈절(우란분절)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 2024년 한국밀교학회 춘계 학술대회

일시 6월 13일(목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30분  
장소 불교총지종 부산 정각사 3층 서원당

## 대주제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 대성사의 사상과 밀교

- 1. 불공
- 2. 개회사 한국밀교학회 학회장 효명 정사
- 3. 인사말 불교총지종 정각사 주교 법일 정사
- 4. 축사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내빈 소개 및 단체 사진 촬영
- 5. 주제발표  
제1주제 원정대성사 행장과 사상  
제2주제 한국밀교의 전개에 따른 육자진언 문물의 현황과 특징  
(12:00~13:00 점심 공양)  
제3주제 인도후기밀교에서 기술하는 밀교의 위상과 의의  
제4주제 불정존승다라니에 관하여 (14:30~14:45 휴식)  
제5주제 밀교법구의 상징성 -금강저를 중심으로-  
제6주제 실록을 통해본 조선시대 불교의 밀교적 경향
- 6. 회향